

8월 광주·전남 지역 분양 '0' 주택 건설 경기 불황 '직격탄'

인·허가·착공 감소 등 부정 지표 속출 실적·준공 수도권 vs 미분양 지방 집중 "금리·정부 정책 따른 수요자 관망 추세"

8월 광주·전남 주택 분양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지역 건설 경기가 장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미분양 해소 정책, 인·허가·착공 감소 등 관련 지표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지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와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은 4천198호로 집계됐다. 6월 3천577호에서 7월 4천376호, 8월 4천198호로 최근 3개월 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주택 미분양 양상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6월 미분양 1천297호에서 7월 1천357호, 8월 1천370호로 소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면, 전남은 6월 3천280호, 7월 2천919호, 8월 2천828호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주택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경기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에서도 전년 대비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광주지역 주택 인허가는 9호로 전년(478호) 대비 98.1% 감소했다. 전남은 지난해 8월 25호에서 올해 8월 25호로 68% 소폭 올랐다.

광주지역 8월 착공은 249호로 전년 동월(13호) 대비 1천815.4% 올랐다. 하지만 올해 1-8월

은 427호로 전년 같은 기간(3천918호)에 비해 89.1% 감소했다. 전남지역 8월 착공은 979호로 전년 동월(214호) 대비 357.5% 올랐지만, 1-8월 누계는 3천57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616호)에 비하면 36.3% 줄어들었다.

광주지역 1-8월 분양은 1천14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2천529건) 대비 90.9% 감소했다. 전남지역 1-8월 분양은 3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257건) 대비 89.1% 감소했다.

올해 8월만 한정해서 광주·전남지역 분양은 0건이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와 정부의 미분양 해소 정책에 따라 수요자들이 관망하면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통계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광주지방국세청, 추석 온정 나눔 전통시장 장보기부터 아동시설 위문품까지

광주지방국세청은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 간부와 직원 40여 명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정겨운 인사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장보기 행사 직후 광주지방국세청은 아동 양육시설인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광주영신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을 실천했다. **<사진>** 광주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기 기자

금타 곡성공장 국제 지속가능성·탄소 인증 획득

비즈니스 전반 순환 경제·탄소 중립 지원 지속가능재료 2045년까지 100% 전환

금호타이어는 29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ISCC PLU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 인증)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CC PLUS는 바이오 및 재활용 원재료를 포

함한 대체 원재료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이다.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제품 생산·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검증함으로써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재료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 카

본블랙, 페스틸 코드, 페플라스틱 기반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해바라기유 등 지속가능한 재료를 80%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이번 ISCC PLUS 인증은 금호타이어의 지속가능성 여정에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해 8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받으며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엄마 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 지금 이용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idolbom.go.kr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신고가 돌아 후 첫 조정...걱정의 벽 넘어야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한 주간(9월 24-30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3.5%가량 하락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인 코스피 2천억원, 코스닥 3천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코스피 500억원 순매수, 코스닥은 2천억원 가량 순매도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매수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한 주간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네이버와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의 합병건이었다. 지난주 25일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 가능성이 기사화됐는데, 국내 최대 검색·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암호화폐 독점적 거래소의 합병은 국내 온라인·디지털 경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은 물론이고, 코인 지갑과 연동한 오프라인 결제, STO(토큰증권), 네이버가 가진 글로벌 웹툰 플랫폼과의 연계 등 두 기업의 합병은 새로운 기회의 계몽모니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정치권의 제도화 속도에도 따라 하나, 둘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병건이 진행되면 네이버의 대주주는 두나무의 송치형 대표로 바뀐다. 기존 네이버 대주주 이해진 의장은 이전부터 기존 재벌들과 다른 기업 거버넌스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배주주들이 회사를 뺐다 붙였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지분율을 강탈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었으나 네이버는 한 번도 그런 짓을 안했고, 오히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며 본인은 경영보다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딜은 이해진 의장이 대주주 지위를 넘겨주면서까지 네이버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진정한 리더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기준 3,497pt까지 신고가 돌파 이후 첫 조정국면을 맞았다. 조정의 원인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걱정 혹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었고, 증시는 항상 걱정의 담장을 타고 올랐다.

조정 첫 번째 원인은 지난주 과열의장이 증시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실제로 미국 S&P500 지수 기준 최근 6개월 사이에 증시는 20% 이상 올랐다. 시장과 열론 주장이 이미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주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 연준 의장이 자산 가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년 그린스펀 전의장이 '비이상적 과열'이라고 발언했을 때도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은 몇 년간 유지된 바 있다. 역으로 닷컴 버블 붕괴는 2000년을 고점으로 미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현실화됐는데, 그 빌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 우상향 되고 있는 건조한 펀더멘탈이 밑바탕되고 있는 시장이기에 증시 고평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급격한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두 번째 원인은 이전 칼럼에서 언급했던 미 연방정부 폐쇄리스크다. 10월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예산안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거 연방정부 폐쇄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된 범위에서였다. 2018년도에 3일만 이어졌던 연방정부 폐쇄 사례를 보더라도 S&P500 지수는 10% 오히려 상승했는데, 단기간 급등한 증시를 고려했을 때 이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하락의 단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은 원 달러 환율의 급등이다. 연초만 하더라도 주요 증권사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은 1천300원 초반대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1천300원대를 깰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달러 강세를 받치고 있고 무엇보다 한-미 패키지 협상 불안감이 원화 약세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얻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본다. 물론 협상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협상이 타결된다면 원화 약세 심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협상 전은 1천400원 초반대 고평가가 유지되겠지만 후에는 1천300원 중후반대로 회귀하는 흐름을 예상한다. 타결되면 국내 수출주주의 외국인 공급도 늘어날 것이기에 여러 걱정의 벽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악재가 경제 펀더멘탈, 통화정책 및 유동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준의 악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충분히 걱정의 담장을 타고 증시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